나주 고구려대학 교명 바꾸고 제2의 도약

봉사하는 대학 '지역사회속으로'

해남캠퍼스 평생교육원·건강센터 개원

中·比 국제사업, 학교기업 육성도 활발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에 위치한 나주대학이 지난 9월 교명을 고구려 대학으로 바꾸며 새로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

지난 1995년 금성환경전문대학으로 문을 연 이 대학은 다시 1998년 나주대학으로 개명했으나 학내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어 지난 8월 정이사 체제로 환원한 뒤 개명과 함께 고구려 대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 제 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그중 내년 3월 개설예정인 해남캠퍼스는 고구려 대학이 웅지를 펼치는 시발점으로 10개 학과에 200여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남군과 23일 MOU를 체결, 여성대학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남캠퍼스는 평생교육원과 건강지원센터 등을 개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이념을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구려 대학은 지난 99년 설립한 노인복지센터를 더욱 확장, 나주지역 저소득 재가독거노인들을 위해 간병·청소 등 가슴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원장을 비롯해 사업관리자 4명, 노인돌보미 요원 33명,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요원 10명 등 51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윤길 법인처장은 "10년 동안 진행해온 노인복지사업은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될 만큼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끊임없는 교감을 이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기상은 대학이 추진중인 국제사업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내년 3월 필리핀에 2년 과정의 직업교육대학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중국·베트남·캐나다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글로벌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필리핀에 해양자원연구소 개소를 적극 검토 중이다. 연구소는 현지 연구소 및 기업들과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 해양자원에 관한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와함께 10여년 전부터 교류하고 있는 중국 치치하얼시와 연변에는 고구려 대학 어학원을 설치, 양국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치치하얼시와의 인연으로 현재 30여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고구려 대학에서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다.

학교기업 육성 프로젝트도 괄목할 만하다. 고구려 대학은 전국 최초로 '커피바리스타 학과' 개설과 함께 '고구려 커피'라는 브랜드 기업을 창업, 대학의 재무 건전성과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진 대외협력처장은 "커피바리스타 학과는 단순히 커피를 추출하는 일뿐 아니라 로스팅·마케팅·경영 등 커리큘럼을 익혀 커피전문가로 키워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아울러 브랜드 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구려 대학은 (사)나주예총 및 나주 'GO, ART' 사업단과 산학협력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고구려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나주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발 맞사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구려대학 캠퍼스 전경

"봉사와 희생 가르치는 대학 만들 것"

설립자 김광아씨

"고구려 대학은 지난 7월16일 새로운 신념과 각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대와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아(66) 고구려 대학 설립자는 "관선이사 체제는 개인적으로 한없는 오명과 치욕의 세월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고구려 대학의 건학이념인 '신(信)과 의(義)'를 실천덕목으로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미래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뿐"이라고 굳은 신념을 내비쳤다. 김 설립자는 "700여년 동안 광활한 만주대륙을 지배했던 고구려의 웅지를 떠올리면 다소 혼란스러웠던 12년여 세월은 먼지같은 것"이라며 "지역발전에 힘을 더하고 학생들에게도 봉사와 희생을 실천하라고 깨우쳐주는 그런 대학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구려 대학은 내년 3월 해남군에 10개 학과, 200명 정원의 제 2캠퍼스를 개설하기 위해 23일 해남군과 MOU를 체결한다.

이와 관련, 김 설립자는 "지역내 다른 대학들이 정원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 등 외지에 제 2캠퍼스를 설립한 것과는 달리, 고구려 대학은 지역민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해남을 고집했다"면서 "해남 뿐 아니라 진도·장흥·완도 등에 대한 교육 향수기회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목포출신인 김 설립자는 목포중, 목포공고, 건국대를 거쳐 러시안슬라빅대학에서 명예교육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아신기업과 해남관광호텔을 운영중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전문인 양성 글로벌 명문대학 육성"

임채규 총장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명문대학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구려 대학 임채규(55) 총장은 "새롭게 교명이 바뀐 만큼 세계를 개척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새롭게 키워나가겠다"며 "특히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과정과 학내외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대학을 나와도 졸업생들이 스스로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교육이 아니라, 다분히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갖춰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학교기업인 '고구려 커피'와 관련된 '커피바리스타' 학과가 바로 그런 시도"라고 밝혔다.

특히 임 총장은 "우리 역사속의 고구려는 웅혼한 기상을 통해 만주벌판을 호령했다"면서 "그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대학체계를 정비, 졸업생 한명 한명이 지역을 넘어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총장은 "올해는 제 2의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기로 학교·교수진·학생들간 친화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내년부터 중국·캐나다·필리핀 등과의 협력사업 등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있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